



'키다리 아저씨'를 읽고

《키다리 아저씨》의 주디에게

안녕 주디야? 나는 김하명이라고 해.

나는 네가 고아원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너를 돕고 싶어졌어. 매달 첫번째 수요일이면 97명의 고아를 말끔히 씻기고 11명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니,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네가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평의원님께서 너를 대학에 보내 주시겠다고! 난 정말 놀랐어. 한편으로는 기뻐지 또 너를 축하해주고 싶어.

그런데, 대학에서는 너를 대학에 보내주신 평의원님께 매달 한번씩 편지를 써야 한다며? 한달에 한 번 쓰면 되는데, 넌 여러번 쓰더라 나는 귀찮고 힘들어서 한달에 한 번 쓰는 것도 싫었을 거야. 아무리 나를 대학에 보내주셨다 해도 말이야. 난 그런 점에서 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디야! 너는 평의원님께 키다리 아저씨 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잖아 난 그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그 이름이 너의 상상력에 어울리기 때문이야. 난 너의 상상력이 좋더라고.

주디야! 내가 너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니? 바로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야. 그런데 알게 되었어. 키다리 아저씨가 저비도령님이라는 것을! 난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주디! 난 너의 이야기를 읽으며 너를 본받고 싶어졌어.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너의 불우한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 또 고아원에서의 경험을 값지게 여기게 되고, 부족함이 없이 산 사람과는 다르게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에도 감사해 하니까. 마지막으로 너의 홀로서기 위한 노력! 내가 너라면 그런 생각, 노력은 하지 못했을 거야. 넌 참 대단해!

책으로나마 너를 알게 돼서 기뻐. 그럼 안녕!

-2020년 7월 25일

주디를 꼭 만나고 싶은 하명이가

